

## 미국, 넥스트 팬데믹 대응 첫 번째 지원대상 선정 발표

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

### □ 미국 보건복지부(HHS), 새로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한 '프로젝트 넥스트젠'의 첫 번째 지원대상과제 선정 발표. 14억 달러 지원

- 8월 22일, 미국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인 생물의학첨단연구개발국(BARDA)은 미래 팬데믹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4억 달러 규모의 지원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힘.
- 여기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백신 임상시험 지원과, 3억 2600만 달러의 신규 항체 치료제 개발, 그리고 1억 달러 규모의 신규 백신 및 치료제 기술 등이 포함됨.

<프로젝트 넥스트젠 첫 번째 선정 과제>

▷ 4개 기업\*의 백신 2b상 임상시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0억 달러 지원. 이를 통해 올해 겨울에는 미래 변종에 대해 더 오래 지속되는 새로운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기대

\* ICON Government and Public Health Solutions, Inc; Pharm-Olam, LLC; Technical Resources Intl (TRI), Inc; 및 Rho Federal Systems, Inc.

▷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차세대 단클론 항체 개발을 위해 Regeneron社에 3억 2600만 달러 지원. 이를 통해 올해 가을에 임상시험 개시 예상

▷ BARDA Ventures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인 Global Health Investment Corp.에 1억 달러를 지원하여 향후 팬데믹 대응을 가속화할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. 이를 통해 미래의 백신 및 치료제 가용성 강화 기대

▷ Johnson & Johnson Innovation(JLABS)에 1천만 달러를 지원해 BARDA-JLABS간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Blue Knight를 통한 경쟁 촉진

- 이번 지원은 미국 정부가 올해 4월 10일 새로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'프로젝트 넥스트젠(Project NestGen)'의 첫 번째 지원 과제임.
- "프로젝트 넥스트젠(Project NextGen)"은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바이러스를 포함해 미래 공중보건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더 향상된 방어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.
- 최소 50억 달러가 투자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민간과 협력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진행되며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있어 실험실 연구에서 임상시험, 그리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한다고 밝힘.

- <참고> 1. Project NextGen Awards Over \$1.4 Billion to Develop the Future of COVID-19 Vaccines and Therapeutics, HHS 보도자료, 2023.8.22  
2. 미국 정부, 넥스트 펜데믹 대응 위해 50억 달러 투자, 한국바이오협회 이슈브리핑, 2023.4.12